

미국 -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FPL이 합병계획 발표 (M&A 붐 다시 일어날 것인가)

미국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본사 :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가스&일렉트릭사의 모회사)와 FPL 그룹(본사 : 플로리다 주 주노비치, 플로리다 파워&라이트 사의 모회사)은 지난 2005년 12월 19일, 110억달러의 주식교환 방식으로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

1. 새 회사의 개요

이번의 합병계획이 실현되면 시가 총액 약 280억달러, 연간판매액 270억달러, 총자산 570억달러의 새로운 회사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탄생한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대(大) 상공업 수용가를 위한 경쟁소매공급사업 분야에서는 전 미국 제1위의 점유율을 자랑한다. 새 회사는 FPL의 대규모 발전 포트폴리오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미국 전역에서의 도매발전사업과 에너지 거래, 대상공업수용가를 위한 소매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 회사는 볼티모어와 주노비치에 2개 본사를 두고 종업원 수는 21,750명이 된다. 전력수용가는 플로리다 주와 메릴랜드 주에 550만여 호, 가스수용가는 메릴랜드 주에 62만 5천호가 된다. 원자력, 풍력, 석탄화력, 가스화력 등으로 이루어지는 새 회사의 발전설비용량은 4,500만kW를 넘어 전 미국유수의 기업이 된다.

원자력에 있어서 새 회사는 엑셀론, 엔터지에 이어 전 미국 제3위의 원자력 발전회사가 되어, 7개 발전소, 11개 유닛, 870만kW를 보유하게 된다. 앞으로 기설 플랜트의 매수와 신규 플랜트의 건설을 추진하여 원자력의 설비용량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합병의 조건으로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FPL 그룹의 보통주식은 1주가 새 회사의 1.444주 및 1주로 각각 전환되어, 콘스텔레이션 주주는 새 회사 주식의 약 40%, FPL 주주는 나머지 60%를 소유하게 된다.

1 | 1 M&A

| 합 병 회 사 | 합 병 후 | | |
|---------------------------------------------------------------------------------------------------------------------------------------------|----------------------------------------------|--------------------|--------------------------------------|
| | 새로운 회사 | 발전 설비 용량 | 수용가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세론 (일리노이즈 주 시카고) •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 (뉴저지 주 뉴어크) (※ 2004년 12월 발표) | 엑세론 일렉트릭 & 가스 (시카고) 총자산 : 700억 달러 | 5,200kW | 전력 710만호 가스 205만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듀크 에너지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 • 시너지(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 2005년 5월 발표) | 듀크 에너지(샬럿) 총자산 : 700억달러 초과 (해외분 포함) | 5,400kW 가스 50만호 | 전력 370만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 홀딩스 (아이오와 주 디모인) • 패시피코프(오리곤 주 포틀랜드) (※ 2005년 5월 발표) | 회사명 불명 총자산 : 325억 달러 | 1,700만kW | 전력 600만호 (영국 370만호 포함) 가스 68만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PL 그룹 (플로리다 주 주노비치) •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2005년 12월 발표) |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볼티모어 및 주노비치) 총자산 : 570억달러 | 4,500만kW | 전력 550만호 가스 63만호 |

FPL 그룹의 현 회장·사장 겸 최고경영책임자(CEO) L 헤이씨가 새 회사의 CEO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현 회장·사장 겸 CEO인 M 샤타크씨가 새 회장으로 각각 취임할 예정이다. 새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이사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FPL에서 9명, 콘스텔레이션에서 6명이 선임된다.

두 회사는 합병에 관한 각 관계기관의 승인을 위한 수속을 1년 이내에 완료하겠다는 의향이다.

2. 앞으로의 M&A 동향

과거 1년 동안에 전력산업부문에서의 4건의 대형 M&A 안건이 발표되어 있다(표 참조), 앞의 3건은 전력지주 회사의 합병을 제한하고 있던 1935년의 공익사업지주회사법(PUHCA)의 폐지를 규정한 2005년의 에너지정책법이 2005년 8월 확정되기 전에 발표된 것이며, 이번의 합병계획은 PUHCA 폐지가 결정되고 이후 처음 발표된 대형 M&A 안건이 된다.

미국 전력업계의 최근의 M&A 붐은 소매자유화가 시작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경까지의 시기에 일어났다. 전력자유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 중에 2000년에는 23건의 M&A 성립되었다. 그러나 2000년에서 2001년에 걸친 캘리포니아 전력위기, 2001년 말 엔론의 파탄에 이은 에너

지 기업의 부정거래 스캔들, 2003년 여름의 북동부 대정권등으로 인하여 업계 전체가 보수화하면서 본업회귀(本業回歸)로 기울어져 M&A 건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채산이 맞지 않는 자산을 정리하고 위험이 많은 사업부문에서는 물러남으로써 부처의 조정엔 진력한 결과 침체되어 있던 전력회사의 재무상태는 2005년까지의 3년 동안에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주와 시장으로부터 그들 기업에 대하여 수익과 배당의 증대를 요구하는 압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M&A를 제한하고 있던 법률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효율 개선이나 비용삭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지리적 범위와 업종을 포함하여 보다 전략적인 M&A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M&A에 의하여 통합된 새로운 기업이 단지 규모가 커지는 것만으로는 효율과 비용 삭감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랜 동안 지역 독점기업으로 존재하면서 다른 기업문화를 가진 자들과도 어울리게 되면 당초에 기대했던 M&A의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번의 콘스텔레이션과 FPL의 합병은 각기 강점을 보완하여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M&A 붐의 선구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통합규모의 대형화와 전략성이라는 측면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